



20250914 주일

제목: 증인

본문: 사도행전 5:27-32

설교: 김성우 목사

27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난주 일어날수 없었던 한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같이 성전에 들어가 삶의 터전에서 증인이 되어 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떠나고 싶다는 성도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와 목장을 통해 저와 가족이 살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님들의 수많은 간증으로 제가 살게

되었기에 예수님과 공동체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나면 증인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나.)

주식의 증인이 되신 한 집사님. 종목을 말씀 밑에 올리신 집사님.... 대선이 끝나면 끝났다는 적용을 하기로 한 집사님. 여기가면 살빠진다더라 머리가 난다더라 증인이 되서 막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결국은 내 경험을 말하면 내 생각과 판단의 증인이 되죠 자신이 경험했기에 옳다고 여깁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강요를 하기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한것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증인이 아닌 나를 일으키신 그리스도

베드로도 세번 부인하고 떠난 자신임에도 자신의 손을 놓지 않으신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끌어다가 세운곳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기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산헤드린 의원들이 모였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하나도 없어 멘봉에 빠집니다. 놀라운 뉴스를 듣습니다. 도망간것이 아니라 공회옆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당장 붙잡아 오라고 하고 끌어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발적으로 이들 앞에 선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공략하려면 여기를 공략해야되 대제사장 사두개인을 전도하면 될거야 하고 전략을 짠것이 아니라 27절 끌려와다고 합니다. 끌려와서 세워진겁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망한겁니다. 자신들에게 불필요한 앓은뱅이를 일으켰기게 끌려온겁니다.

끌어가다라는 단어가 쓰인곳인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사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똑같은 뜻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둘다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생각에 취해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세번 부인이 나오고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시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는데 불과 2달전입니다. 2달이후 오늘 그 똑같은 대제사장 앞으로 도망갔던 베드로가 끌려옵니다. 베드로는 더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된것이죠.

반복하고 실패했어도 또 반복해서 그 상황을 주시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증인으로 서야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첫 나무심자가를 무거워서 버리는데 똑같은 상황을 주셔서 든든해보이는 더 무거운 쇠심자가를 주시고 또 도망가면 장미심자가가 너무 이뻐서 찢더니 가시로 인해 더큰 고통이 임하죠.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는 안됩니다. 이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곳이 나의 거룩을 위한 최고의 사명지이며 증인으로 서야할 자리입니다. 내가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니라 원치 않아 간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야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아 가지 않은 첫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있나요? 저는 부모님을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거 같아요. 그 당시라면 말이죠. 끌려온것이죠 예수님이 사명의 광야로 가셨듯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를 이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왜 이가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짧게 설명드리면 중독, 폭력 아버지와, 가출하신 어머니, 지옥같은 아버지... 베드로가 끌려온 자리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실패하고 반복되어 세워진 자리에서 증인이 됩니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이후에 이 가정을 나를 믿고 맡기신것이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힘도 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기에 두려워 도망친 그곳에서 우리는 증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때리는 남편때문에 지옥이라는 성도님, 어떻게 목사님은 김성우 목사는 어떤 죄가 있었길래 아버지를 아테니조 할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저도 되지 않고 아버지 소천 직전까지도 아버지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 옆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얼마전 치매증상 잇으신 어머니를 벌 일이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차를 태워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못보고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나요? 그 요한이 지금도 끌려왔을때 함께 있죠. 성전 옆 거지가 함께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에 불이 올라와서 자리를 박차고 올라왔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주지 않으십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안되는 내 모습을 나누고 또 고백하는 지체가 있어야 우리는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끌려간 곳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려고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앓은뱅이가 일어섰을때 앓은뱅이는 한마디도 안합니다. 그냥 그사람은 서있는거 자체가 증인이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거 자체가 증인이예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거 자체가

증인입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자체가 증인이고 그 존재만으로도 증인입니다. 오늘 하루 그저 살아내는 것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존재 자체 만으로 증인이예요.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일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2. 내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끌려가서 서게되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의 존재자체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받아내고 살아내고 어떻게 그런 부모님을 내가 고르지 않은 자녀를 감당했냐 물어요...

많이 묻는다는 것은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으면서 대제사장은 말합니다. 이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이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말인 즉슨... 근데 정작 죽인 대제사장인 나에게는 그것이 달지 않았습디다. 너희 가르침이라고 칭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가득한 이미 가득한 이땅에 도시에 가득차다는 표현을 하며 미문에 얹은 거지까지 선것을 봄에도 왜 대제사장과 그 주위사람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까?

그 유명한 얹은뱅이가 서있는데 왜 구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을까?

이들이 이 진리를 스스로 엄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귀를 막고 있고 스스로 금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강압적으로 했다는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내뱉은 이 엄금의 말이 본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명령명령 한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받으라고 판결을 내렸고 사두개인들과 산헤드림 공회원들이 다 동의를 2달전에 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여기 고스란히 서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으면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못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또 금하고 명령합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박았다는 것이 사실이 되기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거 같아서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 금하고 엄금합니다.

아버지가 길에서 술에취해 어머니 욕을하고.... 돌아다니시고...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떠났다고 욕을 했는데 이 욕설이 제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느날 집에 오니 어머니는 안계셨습니다. 내 죄가 아님에도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고 자살하고 싶은 이유는 말할수 잇는 그한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마치 내가 죄인이 된거 같은 기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 같은 죄책감...

말할 한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은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쓴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증인이 되어 자신의 행동에 자랑을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을 잘합니다. 또 이사람이 떠날까봐 가면을 씁니다. 저는 변명을 정말 잘합니다. 저의 뿌리 깊은 연약함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 다른곳에서 변명과 가면으로 나오는 것이죠.

항상 부끄러워서 비비크림 바르고 주차하는 것도 부끄럽고 공부잘했다고 말하고...스스로 엄금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금지 처리를 받았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되요. 가면을 벗으면 사람들이 저를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까 내 잘못으로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탓을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믿어지는 겁니다. 가면을 벗으려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모든 분란은 인정하지 못하는 나 때문입니다. 먼저 직면하는 훈련을 해야합니다. 내 안에 이기심 열등감 질투 어두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죠 덜부끄럽고 싶으니까요 우리는 자랄때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누구의 증인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태도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지만 가면 뒤에는 억울함, 피로감 외로움이 자리잡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연기가 아니라 오해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내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3. 회개함과 죄사함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요한이 대제사장이 물었을때 이 치부 연약함 악함 입에도 꺼내기 싫은 이사람이라고 말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 예수라고 말했을까?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죠?

성우씨 잠깐 이야기좀 해요... 이름을 아내가 부르면 덜컥합니다. 담임목사님도.... 사람을 물리고 나한테 할말없어? 그러면 무섭습니다. 심판이 도래한거죠... 저도 죄지은 사람에게 계속 죄를 지적했던거 같아요.

어릴때는 아버지에게 당하기만 했지만 힘이 생기니 아버지를 지적하며 하지말아야 할 말들.. 결국 그러니까 당신 아내가 집을 나갔지 나 같아도 살고 깊이 앓다고 저주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에게 베드로가 나에게 할말없어? 할때... 누가 누구를 심문하고 판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침이 대제사장을 죽이고 정죄하는 외침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은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언제 주시나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을때 주십니다. 회개는 완전한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내 죄와 완전한 단절... 단순히 내가 예수를 죽였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절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내가 죽였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절과 회개함에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해야 해요 고해야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할수록 이 회개에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였다에서 멈추면 안되고 완전히 끊었다.... 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은과 금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베드로가 담대히 외칩니다.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직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된다면 내 행위를 돌이키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 행위까지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죄인이야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이 슬퍼할 만한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여기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돌아온가면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표현한 이유는 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실 뿐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면 임금은 심판을 하죠 그런데 구주가 나오죠 연약한 우리죄를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으면 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금하고금하고 금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일에 증인이요 라고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받은 추악한 죄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감격과 돌이킨 일에도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루트스라는 순교자... 혈기를 죽이고 죽이는 것이 증인입니다. 혼자가 아니죠 공동체가 있습니다. 끌려간 그곳에서 성령도 함께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여 힘주십니다.

자랑이었던 아들이 연상의 여자와 결혼을 실패한 여자와 아들이 결혼하려는 사건 앞에서

끌려간 환경에 마주하니 수많은 과정가운데 머느리가 나보다 옳다고 여기며 유부녀와 두번
바람핀 사건을 오픈하고 치리를 받으신 장로님

여기서 끝나면.... 안되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에서 끝나면 안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니 다시 돌아갈수 없는 것이죠. 고백하고 고백하니 다시는 그 끔직한 범죄로 가지 않고
회개함까지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장로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지 모릅니다.
바람핀 남자와 여자에게 가서 무릎꿇고 사죄하고 이 분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